

# “옷 바꾸어 입는 것 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다”



다음날 아침. 대연 거사는 원각 스님의 시자가 부르는 소리에 방을 나왔다.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요. 공양간은 저기 복도를 돌아가면 나옵니다.” “하룻밤 편하게 보냈습니다.” “감원스님께서 차를 한 잔 하시잖나. 공양하시고 난 뒤 연화실로 오시면 됩니다.” 대연 거사가 하룻밤 보냈던 방은 이른바 특실이였다. 귀한 손님을 위해 비워둔 방 같았다. 싱크대와 화장실이 딸린 원룸 형식의 방이었다. 방 한쪽에는 차를 마실 수 있게끔 다락과 전기포트와 다구들이 준비돼 있었던 것이다. 비는 멈추었지만 햇살이 쏟아지는 양명면 날씨는 아니었다. 축축한 물안개 같은 것이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고, 땀과 같은 비구름은 가야산 골짜기마다 머물고 있었다. 대연 거사는 아침식사는 늘 생략하곤 했으므로 공양간으로 가지 않고 경내를 산책했다. 달마선원 좌측으로 난 산길을 따라 오르자, 그 끝에 숲속에서 숨어 있었던 것처럼 육각정이 하나 튀어나왔다. 육각정에는 젊은 스님이 반가부좌 자세로 편하게 앉아 있었다. 다가가서 보니 원주 소임을 보고 있는 현오 스님이었다. “스님 덕분에 하룻밤을 잘 보냈습니다.” “필요 제 덕인가요. 다 큰스님께서 해놓으신 불사지요. 이 육각정도 원래는 큰스님 계실 때에 미소굴 옆에 지어졌다가 후에 이곳으로 옮긴 거지요. ‘공부하다 죽어라’ 말뚝이 있는 그 자리에 이 육각정이 있었어요.”

스님은 출가한 것을 후회했다. 스님이 되려고 출가했는데, 얼굴에 화상을 입어 행복도 벗지 못하는 신세가 됐으니 기가 막혔다. 원당암 경내를 맥없이 오가면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다. 해암 스님이 연화실에서 스님을 불러 마루에 앉혔다. 해암 스님은 아담치지 않고 뜻밖엔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마음이 중요한 거다. 옷 바꾸어 입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옷 바꾸어 입었다고 치자. 빨간 행자복 벗고 회색 옷으로 바뀌 입는 것밖에 네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나. 출가한 그때나 지금이나 공부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마침 원주를 보던 각인 스님도 두세 번이나 저더러 행사나 치르고 다시 생각해 보고라고 했고, 저도 그때 ‘이왕 좋은 도량에 왔으니 사계절 변하는 것이나 보고 가자’고 생각했고요. 음력 9월 9일 중앙절이 지나고 나니 비로소 신심이 나더군요. 재가불자들과 함께 참선도 하고 그러다 보니 환희심이 생긴 것이지요. 이후 큰스님 시자로 살다가 스님 입적하시고 난 뒤 해인사 강원에서 4년 마치고 봉암사, 부석사, 범어사에서 한 철씩 나와 원당암으로 돌아와 이렇게 10여 년이 됐습니다.” 현오 스님은 놀변이지만 구수하게 얘기했다. 지난 얘기를 하는 것도 마음을 내려놓는 방하착(放下着)하는 수행인지 스님은 출가분한 표정을 지었다. 과거의 이런저런 일들은 굳이 답아두고 살 필요가 없다는 그런 표정이었다.



마당가에 잡초 있으면  
“울력하는 시늉만 냈다  
정진도 그렇게 할거다”  
매사를 정진 삼으라 훈계

그러나 은사인 해암 스님이 던진 가르침들은 지금도 중노릇하는 데 자신을 긴장시켜주고 또 한편으로는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스님께서 저를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별명도 지어주었습니까.” “다른 시자들한테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하고 있는 제 옆을 지나시다가 ‘술가락 같은 놈’이라 하더라구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술가락처럼 왔다갔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해암 스님은 생각 없이 사는 스님을 볼 때마다 야단을 쳤다고 한다. 현오 스님이 가스 사고를 당하고 난 뒤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에도 위로는커녕 ‘넌 모든 걸 건성으로 하는 놈이다!’고 야단을 쳤다는 것이다. 대연 거사는 문득 언젠가 보았던 <법구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어리석은 이는 한 평생을 두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삼길지라도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술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우리 스님을 모시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지요. 100여 명의 대중이 사는 원당암에서 원주를 살아 보니 틀림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소한 일을 잘 챙기는 사람이 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큰스님께서 늘 저에게 말씀했지요. 사소한 일을 잘 챙기라고요. 그대야 큰일이 닥치더라도 불퇴전의 마음으로 큰일을 잘 챙긴다고요.” 실제로 해암 스님은 원당암에 들어온 행자와 수행자들에게 비질과 결례질, 문종이 바르기 등등 작은 일들을 스스로 시범을 보이며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했다. 문종이를 바를 때는 종이를 크게 자르지 말고 구멍 난 끈기만 삼각으로 오려서 보기 좋게 바르

라고 했고, 비질은 한 번에 하지 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티끌을 모아 쓰레받기에 쓸어 담으라고 시켰다. 그런가 하면 걸레질도 앞으로 하면 맑게 되니까 뒤로 돌려나면서 닦으라고 했고, 마당의 풀을 뽑을 때도 게으름이나 수마를 물리치듯이 뿌리까지 뽑으라고 시켰다. 해인사 선방 마당에 박힌 바위 언저리에서 잡초가 나자 ‘중들이 울력하는 시늉만 냈다. 그 높은 아마 정진도 그럴 것이다’라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대연 거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님 얘기를 듣다 보니 깜박 했습니다.” “아침인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원각 스님께서 차를 한 잔 마시자고 부르셨습니까.” “연화실에 계시니 어서 가보세요.” 현오 스님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핸드폰을 꺼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했다. 대연 거사는 계단을 내려서다가 비구름이 걸린 해인사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부채살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원당암 당우들도 맑은 햇살로 행구어낸 듯 산뜻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대연 거사는 달마선원을 지나 북강안 운봉교에서 잠시 멈추어 안내판의 글을 읽었다. 하룻밤 보내고 나니 원당암과 왠지 더 정이 든 듯했는데, 안내문은 원당암을 더욱 가깝게 해주고 있었다. “원당암은 해인사 1번지 같은 상징적 암자다. 신라 애장왕은 부처님 가호로 공주의 병을 낫게 되자 순을, 이 정 두 대사의 발원에 따라 국력으로 해인사를 창건하게 된다. 당시 국왕은 서라벌을 떠나 가야산에 들어와 불사를 독려하면서 국정을 보았으므로 원당암을 수도 서라벌 북쪽에 위치한 궁궐이란 뜻에서 북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창건 당시에는 이곳의 산 모양이 봉황이 날아가는 모습을 한 비봉산 기슭에 있다 하여 봉서사라 이름하였고, 진성여왕 시대부터 본격적인 신라 왕실의 원당이 돼 왔기 때문에 원당암이라 부른 것이다. 비상하는 봉황의 모습을 하여 가야산의 옹묘한 정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야산 최고의 전망대가 바로 이 운봉교이다. 이 운봉교에서 왼쪽으로 보면 가야산 정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바로 눈앞에는 해인사 큰법당과 팔만대장경을 모신 장경각 등 해인사 전경이 한눈에 다 들어온다. 원당암에서 보면 풍수에서 말하는 좌청룡 우백호, 그리고 안산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진 셈이다.” 누군가가 공을 들여 쓴 글이었다. 한 문장에서 같은 단어를 중복한다거나 어색한 문장과 어휘가 한두 개 있지만 담백한 서너 단락의 문단 속에 원당암의 역사와 풍수를 적절하게 다 드러내놓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정성이 가슴에 전해졌으므로 대연 거사는 자신이 지금 상서로운 원당암에 와 있다고 느꼈다. <계속>

“사소한 일 잘 챙기는 사람이 도인”  
시범 보이며 가르침 주던 해암 스님

##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틀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나가 죽고 죽고 나는 것이 티끌 세상에 몸이어서 원수나 친한 이나 한길로 황천으로 가네. 황천으로 가는 길은 어느곳으로 통하기에 해가 가고 해가 와도 가신 분 돌아오지 않네. - 해암대종사 법어

**정진안내**

- **칠야 응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7일 칠야 응맹정진** 여름 : 음력 7월 1일 ~ 8일  
겨울 : 음력 12월 1일 ~ 8일
- **동안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철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하안거결제** 음력 4월 15일 ~ 7월 15일
- **산철결제**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매년 설날, 중앙절(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린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